

●문재인농정, 변화 희망이 보인다... 공공급식 확대 · 공익형 직불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이 시작과 함께 새 농정 방향 가닥이 잡히게 된다. 문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운 농정공약들은 농민들의 숙원사항을 다수 포함해 긍정적 변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어려운 우리 농정이 과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직불제 개편과 공공급식 확대공약은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친환경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다. 고등학교와 복지시설, 군대 등 공공기관에 공공급식을 확대 지원과 쌀 목표가격 인상도 약속했다. 대북 쌀 지원을 언급해 단절됐던 남북 농업교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농정공약

정책기구 정비

-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
- 협치농정·참여농정 구현

쌀농업 수호

- 쌀 목표가격 인상
- 강력한 생산조정제 및 대북 쌀 지원
- RPC·APC 농사용 전기 적용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
- GMO 표시제 및 공공급식 확대
- 친환경농산물 분리경매제 도입

농가소득 안정

- 재해대책 및 재해보험 현실화
- 공익형 농업직불제 시행
-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여성농민 권익 향상

-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 여성용 농기계 보급 확대
-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육성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 마케팅보드 및 의무자조금 확대

축산 방역 강화

- 항생제 지양 및 백신생산 연구
-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 양계 GP센터 설립 지원

농어민 복지 확대

-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확대
-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 ●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지원 강화한다

- 수출T/F팀 구성 : 농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수출진흥과), 농정원, 실용화재단 농기자재 관련협회 및 전문가 \* '17.5.1~7.10 \*필요시 연장
- 농기자재 수출정보 DB화 : **수출정보 입력사만 지원함**  
각 협회는 5.28(목)까지 통계자료 작성 제출
- 수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  
각 협회는 5.31(수)까지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건의사항 등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 농식품부 수출반장에게 제출
- 농기자재 8종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전략 수립

### 사업비전

농기자재 산업육성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자재산업 한계극복  
수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차원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 정부목표

20년까지 농식품외 농기자재 수출지원 기반구축 수출정책 외연 확대  
농기자재산업의 내수진작 및 수출 활성화 ▶ 경제적 파급효과: 연 100억불 달성  
▶ 농기자재 수출 ('15)18.8억불 → ('22)25억불 ▶ 농기자재 강소기업 육성: 5개이상

### 전략목표

수출대상국 수요자가 원하는 농기자재 수요조사  
수출전용 고효율제품개발

수출 현지국 R&D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테스트 베드 구축·운영

제조사-현지국 수요자 연계를 통한 원스톱 value chain 확립  
농기자재 팩키지 수출

### 과제세부내용

#### 국내 농기자재 산업 경쟁력 제고

- ① 고품질/첨단 농기자재 개발 보급
- ② 원천기술 국산화 R&D지원, 내수시장 안정, 생산기반현대화

#### 국산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 ① 수출 정보기반 구축
- ② 수출전략형 R&D 지원, 수출기업 육성 및 시장개척

#### 농기자재 유통구조 선진화

- ① 불량자재 유통방지
- ② 정부지원체계 전면 검토/개선 등 유통구조체계 전면검토/개선 등

#### 농기자재 비용절감 등

- ① 농기자재 이용효율화
- ②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 관련규정(법, 제도 등) 개선

### [수출시장 개척전략]

- ①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출전용 친환경농자재 제품 우선 개발
- ②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력, 인력, 기술력 등 국제 경쟁력 구비 과감한 투자
- ③ 바이어 중심의 제품 구색을 갖추고 단계별 수출목표를 정하여 추진
- ④ 영어 등에 능숙한 해외 전문인력을 확보 해외등록을 우선 추진
- ⑤ 중국 등 수출대상국 이문화 이해, 유망 바이어를 통한 해외마케팅 능력 확보
- ⑥ aT, 지자체, 중기청등을 활용, 해외 전시회참가로 유능한 바이어 잡아 추진
- ⑦ 정확한 해외시장파악 know-how 공유, 공동원료구매 및 협회수출 대행 등

## [산업 여건]

### 내수 시장

- 농기자재산업 내수규모('15) : 5.2조원
- 농기계 2.3조원, 비료 1.5조원, 농약 1.4조원, 유기농자재(유기질포함)1조 3천억, 종자 9,662억, 동물의약품 6658억, 시설자재 6천억, 사료첨가제 2,777억원
- 산업별 상위 10개사가 60% 이상 점유, 화학농약·비료사용량 감소추세

### 해외 수출

- 한류 영향 동남아 위주로 수출확대 추세이나 가격경쟁력은 취약
- 농기계('16 백만불) : 829, 비료 250, 동물의약품 210, 농약 111, 사료 100, 종자 46, 유기자재 35, 시설자재 25

### 국내시장 지속 침체

- 내수시장 확대한계로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최근 5년 농기계시장 2.3조
- 수출전용자재 개발 필요

### 산업 국제경쟁력 취약

-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체로 초기 R&D 투자부담 및 신기술 개발 한계
- 농기계업체(800개)중 90%가 연매출액 50억 미만

### 원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 요소 인광석 등 주요 원자재 국제가격 급등시 경영악화 및 농자재 가격 상승 유발
- 원자재수입의존도 : 화학비료 100%, 농약95%

## [정책지원 건의사항]

- ① 수출유망국 등록·검역·유통 정보파악 소상한 유망수출국 정보제공
- ②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므로 협회차원의 공동수출 확대위한 R&D 지원  
- 수출상대국이 원하는 수출전용 바이오비료 및 생물농약 개발
- ③ 친환경농자재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 지원  
- 해외 전시회 부스비 지원(한국관 설치) 및 B2B미팅 등 판촉행사 지원
- ④ 해당국 등록 선행을 위한 TEST-BED 사업 확대
- ⑤ 국제인증 또는 등록비용 지원
- ⑥ 농식품 수출지원항목에 포함 수출 물류비 및 현지사업화 지원 등 제품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수출 종합시스템 지원

## ●2017 대규모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개최

aT센터는 해외현지 농식품 및 농자재산업의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농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인 『Buy Korean Food & Agriculture 2017』를 6.13(화)부터 aT센터 전시장(3층)에서 농식품부/aT 주최, 당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므로 수출업체의 많은 참여를 요망

### 1.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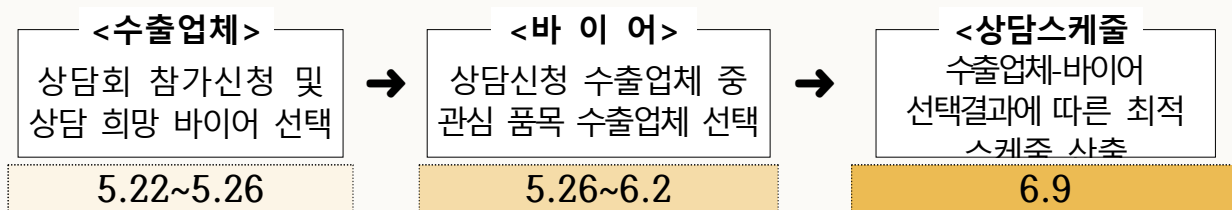
- 행사명 : Buy Korean Food & Agriculture 2017(BKF 2017)
- 일시/장소 : 2017.6.13(화) 10:00 ~ 18:00 / aT센터 2전시장  
- 6.13일(매칭 상담회) / 6.14일(관심기업 방문 또는 6차산업 체험)

- 주최 및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공사 및 농산업관련협회 공동주관(농기계협동조합,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식품산업협회, 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
- 상담규모 : 해외바이어 100명 내외, 국내 수출업체 300개 내외
- 상담방식 : 해외바이어와 수출업체간 1:1 매칭상담

## 2. 상담회 신청방법 및 상담매칭 프로세스

- 신청기간 : 2017. 5. 22(월) ~ 5. 26(금)

- 상담매칭 프로세스 및 일정



-업체별 상담매칭 결과 확인 : 2017.6.9.(금)부터 메일로 발송

## 3. 참가신청 관련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 02-2058-3131)로 문의바람  
(참가 신청 이메일 주소 : sssbbb99@naver.com)

###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이 공시제로 통합하되 자율표시제로 바뀔에 따른 조문개정

#### <주요 골자>

- 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관련 내용과 공시구분을 삭제 "공시"로 수정
- 나. 유효 및 대표성분을 "주성분"으로 일괄 수정하고 정의 설명(제2조)
- 다.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면,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는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 유의성 효과 인정되어야 하며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무처리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 50%이상 되어야 함(별표1 제1항)

※ 지역을 달리한 2포장 시험성적(적용 추가 1포장)

라. 공시 심사기준에 따른 해당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광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한정(별표1 제1항신설)

마. 유기농업자재 중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면 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효능·효과 표시하며 유기농업자재 중 비료·농약 으로 등록된 제품은 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가능하고 효능·효과 표시하려면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표시(별표2 제5항)

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하여 확인절차 마련

※ 2017년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시 취합정리 제출코자 함

### ● 친환경농업소식

#### **GAP 지원확대보다 친환경농업육성 절실 ” 농관원, GAP 인증 관련 안전성 검사비 지원방침 = 중앙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 無**

농관원은 지난달 28일 “GAP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GAP 인증제도는 먹거리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는 달리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의 사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친농연 박종서 사무총장은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미온적이었다. 친환경 영구 직접지불제 실시 및 금액 확대,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 문제, 인증비 지원 등 대책은 미흡했으며, 친환경인증제 요건 강화로 농가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보다 GAP를 확대시킨다는 정책방향은 전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은 “지난해 초 정부에서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한 뒤, 저농약 농법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지은 사람들 중 GAP로 상당수가 넘어와 제초제 사용도 늘었다”며, GAP 인증 지원 확대에만 치중하면 더 많은 친환경 농가들이 GAP 기준 농법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농정신문 5/14일 기사)

### ●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1조4,000억원 경제규모 확대효과

####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와 공공급식확대 과제 연구용역 발표회'서 주장-**

지난달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경기친농연이 주최한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와 공공급식확대 과제 연구용역 발표회’는 2010년 시작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녀름 장경호 소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사회적 수요 확대를 위한 친환경생산자의 대응방향과 활동과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4,7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243억원, 취업유발효과 34만2,000여명 등의 결과를 낳았다. 장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 0.792로, 이는 한국은행이 2014년 발표한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676보다 높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부의 분배에 기여하는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 ●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 국무회의 통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예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관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관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

농산물 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내리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밖에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8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 전북도, 전국 100개 학교에 친환경 논 만든다

-전북도, 학교 친환경농업실천사업 일환 서울과 제주 등 모두 100개 학교에 논 만들기-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생명과 환경의 농업적 가치와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어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무통에 흙과 물을 채우고 도내 시군의 친환경농업단체에서 모를 길러 학교에 가져가 학생들이 직접 손 모내기를 하고 재배하며 가을에 낫으로 벼베기, 발탈곡기, 훑태 등 옛 농기구를 이용해 수확하는 등 벼 생육상황과 전통농업에 대한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화산섬의 특성상 논벼 재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제주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특별한 체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 농약·농자재, 농협이 비싸!

-농협의 유통구조 문제점 제기-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상호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 어딜까? 당연히 농협이다. '그런 농협이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자재의 가격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싸게 파는가?)'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일선조합장 농정신문기고]

## ● 진딧물 · 응애 · 총채벌레 주의보

### - 농촌진흥청 천적 방사 및 유기농사용 예방 당부 -

농촌진흥청은 5월 들어 밤·낮 기온이 오르면서 참외, 수박, 고추 등 시설재배 과채류에 해충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시설과채류 주요 해충은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으로 이들은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높아 방제가 어렵다. 특히, 목화진딧물, 온실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 등의 피해가 심한데 주로 새로운 가지나 잎, 꽃에 많이 발생한다. 피해 증상으로는 시들음, 잎의 황화, 과실 갈반, 기형과 발생 등이며 바이러스 매개로 인한 피해로 이어진다. 시설과채류 발생해충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선 천적을 방사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돌발해충 비상! 공동방제로 잡는다

-농진청, 5월 16일~6월 6일까지 '돌발해충 전국일제 방제기간' 지정



이 기간 동안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돌발해충을 조기에 박멸할 계획이다. 공동방제 시 농경지에는 고성능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서 산림지와 이웃한 농지에서는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이용해 방제가 이뤄진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를 진행한다.

## ● 농정 소식

### 40세 미만 젊은 농가 급감 ...청년농민직불제 도입

- 전국 청년농민 1만1000여명 전체 농가의 1.1%에 불과 -

통계청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00년 9만2000명(6.7%)에서 2005년 4만2000명(3.3%)으로 5년만에 반토막이 나더니, 2015년에는 1만4000명(1.3%)으로 삼성그룹이 지난해 채용한 인원이 1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 있는 40세 미만 청년농민을 다 합쳐도 대기업 한곳의 신입사원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5.9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5당 후보들은 모두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제1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연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 ● 농식품부 장관 하마평 무성

-이개호·신정훈·김인식·김영록·김춘진 거론, 황주홍 야당의원 협치 입각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외교와 안보를 시작으로 국무위원 인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계는 농정의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차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하마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농해양수위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영록 전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과 민주당 농해수위간사이개호의원·신정훈 전 민주당의원·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이자 전농진청장인 김인식씨와 협치몫으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 내리고 있다.

## ● 사상 첫 해외 원조용 쌀 750톤, 뱃길에 오른다

-5월 19일(금)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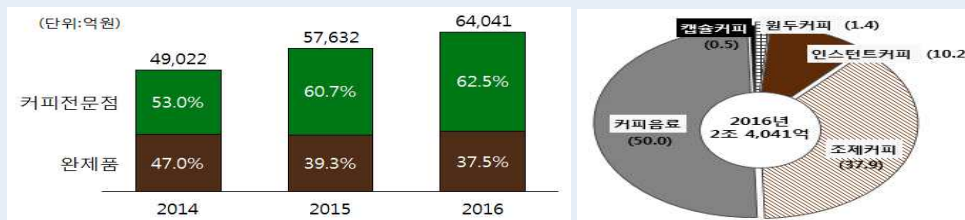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의 역내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쌀 750톤이 해외원조용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쌀은 캄보디아 250톤, 미얀마 500톤 등 총 750톤이며, 5월 18일~20일 광양항을 출항 5월말~6월 중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구 및 Yangon 항구에 도착, 애프터 사무국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금번에 원조되는 쌀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 현지에 1년간 보관될 예정이며,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빈곤퇴치용으로 캄보디아 및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기타 소식]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377잔** - 커피 시장 규모 '14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9.3%씩 증가 - 우리나라 커피 판매시장은 '16년 기준 6조 4,041억 원으로 '14년부터 연평균 9.3%씩 증가 : ('14) 4조 9,022억 원 → ('16) 6조 4,041억 원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는 '14년 대비 53.8% 성장 : ('14) 2조 6,000억 원 → ('16) 4조 원

- 커피류 수출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배증가, 다만 증가폭은 주요 수입국의 경제 침체로 둔화 : 수출규모: ('07) 9,193만 달러 → ('16) 1억 8,021만 달러(196%↑)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6년 377잔, 5년간 연평균 7.0% 증가 - ('12) 288잔 → ('13) 298잔 → ('14) 341잔 → ('15) 349잔 → ('16) 377잔
- 커피를 주로 마시는 시간대 점심 식사 후(27.6%), 자주 마시는 장소는 회사 34.1%



## ◆ **뽕잎 속 '루틴'으로 비만 걱정 '뚝'**

농촌진흥청은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茶)로 마시면 좋다. 루틴은 가바( $\gamma$ -aminobutyric acid, GABA)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및 중풍 예방 등 다양한 뽕잎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봄 뽕의 어린잎에 많이 들어 있다. 뽕 품종 중 항비만 활성이 높은 '청울뽕'을 선발하는 한편, 루틴 함량을 2배~5배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 ◆ **면역력 증진 기대로 인삼제품 시장규모 꾸준히 증가**

- **인삼제품시장 규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4% 성장** -

- 우리나라 인삼제품류 시장 1조 2,425억 원('15년 출하액 기준), 다양한 제품 등장

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4% 증가: 인삼제품 출하액: ('15) 1조 2,425억 원  
농식품부는 인삼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 중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인삼 경작 신고 의무화 및 불합리한 검사제도 개편, 인삼류제품 효능 홍보 강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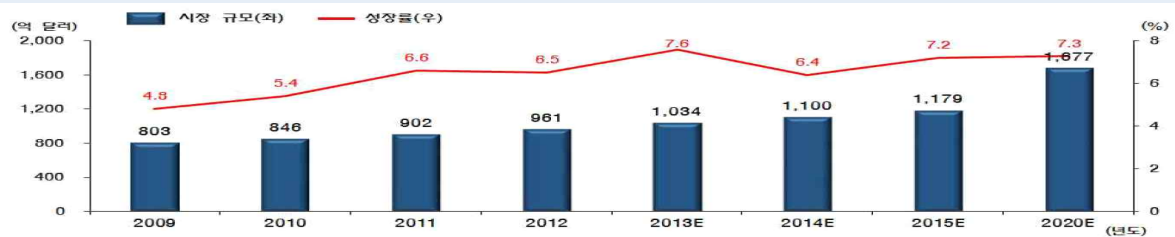
##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 2015년 시장규모 2조 3,291억원,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8.4% 성장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 3,291억원('15년 기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11년 이후 연평균 8.4%의 큰 폭 증가세다. 품목별 시장규모는 '15년 출하액 기준 홍삼제품(6,685억원, 38.6%), 개별인정제품(3,123억원, 18.0%) 순이다.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기능성 농식품자원 통합 DB 구축, ② 기능성평가 지원센터 활용 원스톱 기능성평가지원체계 구축, ③R&D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2015 연평균성장률
총 출하액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7.4%
국내 출하액	13,126	13,507	14,066	15,640	17,326	7.2%
해외 수출액	556	584	754	670	904	12.9%
수입액	3,729	3,532	3,854	4,412	5,965	12.5%
국내 시장 규모	16,855	17,039	17,920	20,052	23,291	8.4%



## [공지사항]

### ◆수출유망분야 캄보디아 사절단 구성 및 상담회 개최

일 시 : 2017. 6. 8(목) ~ 10(토) /2박 3일 장 소 : 태국, 캄보디아

목 적 : 캄보디아 농산업분야 비즈니스 기회 제공

주요품목 : 농산업 가공(선별, 세척, 건조, 포장), 식품가공, 농자재(비료, 사료, 시설재배), 농산물 저장, 유통, 가공 시설 등

#### 내 용

캄보디아 농산업 및 식품가공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참가 기업 모집 및 상담회 개최

캄보디아 농산업 발전분야 현장 확인을 통한 새로운 진출기회 모색

현대종합상사, 주재국 바이어 등 현지 수요자 및 참가 공급기업간 비즈니스 실무 면담

#### 추진방법

○ KOTRA : 사업 기획, 업체 모집, 바이어 주선 업무 (7개사~10개사)

○ 대사관 : 공동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 캄농회 : 네트워킹 행사 공동 주최 및 발표(현대종합상사, MH바이오 포함)

○ 사절단 : 전체 사절단 기업 중 4~5개사별 발표

\* 출장 자체에 소요되는 항공/숙박임은 참가기업 부담

\* 태국 망고 농산물 센터 방문 : 방콕 무역관 및 현대 종합상사 협력